

#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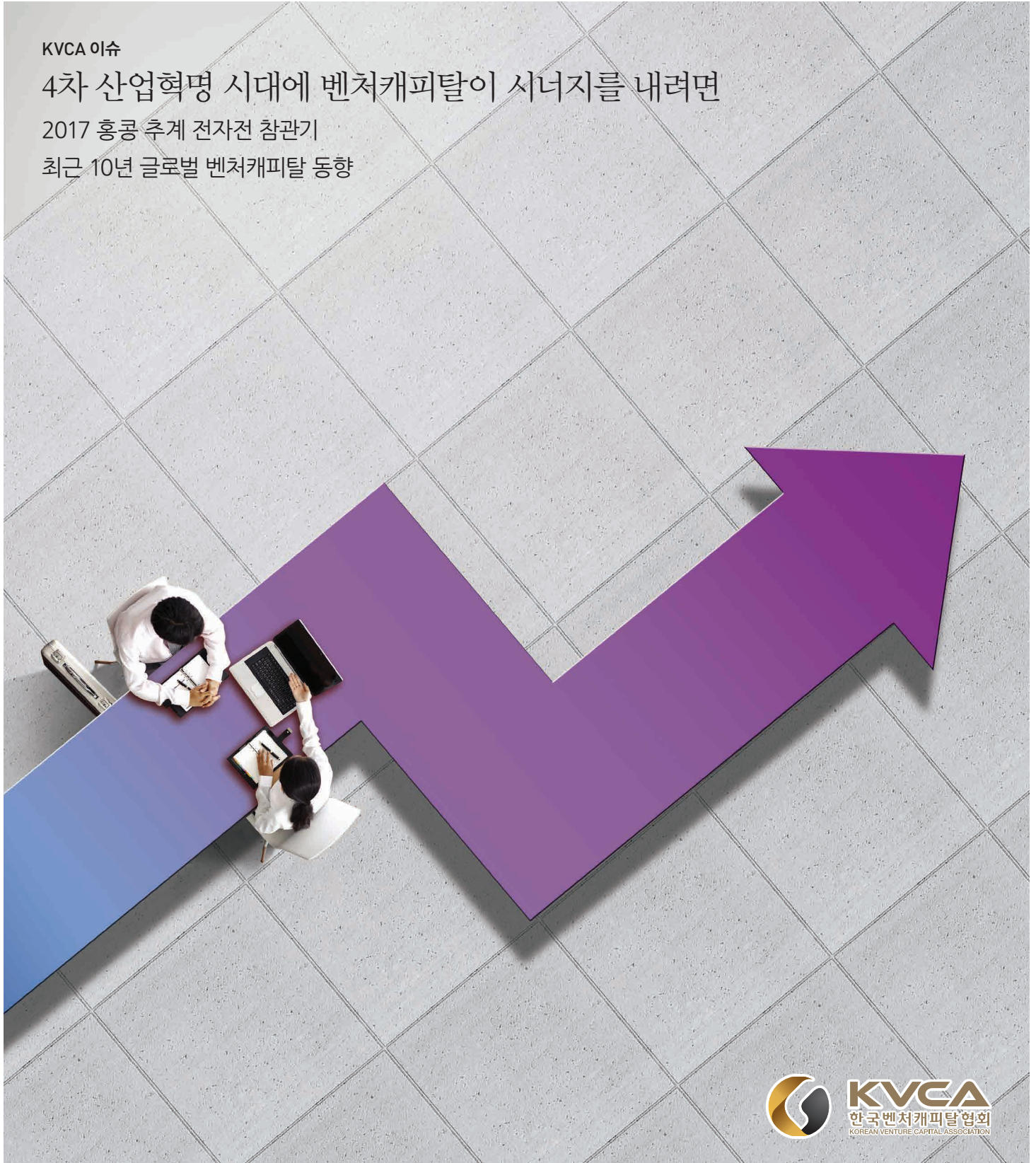
VENTURE CAPITAL  
NEWSLETTER  
[www.kvca.or.kr](http://www.kvca.or.kr)

KVCA 이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벤처캐피탈이 시너지를 내려면

2017 홍콩 추계 전자전 참관기

최근 10년 글로벌 벤처캐피탈 동향



**KVCA**  
한국벤처캐피탈협회  
KOREAN VENTURE CAPITAL ASSOCIATION

# Contents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2017 November vol.113

## 03

### 뉴스 & 리뷰 NEWS & REVIEW

#### 04 KVCA 소식

- 2017 LP-GP 교류회 개최
- 사우디아라비아 민관합동 경제사절단 협회 방문
- 벤처캐피탈 회계처리 대응방안 협의
- 사무국 임직원 하반기 워크숍

#### 05 연수원 소식

- 11월 교육 안내
- 2017년 제23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개최

#### 06 투자 협력·M&A

- 환경산업 투자유치 지원
- M&A 활성화 지원 사업
- 벤처투자 사랑방

#### 08 R&D 사업

- Tech-Up Day 개최
- 해외진출 유망기업 IR 개최
- R&D 기획역량 강화교육 개최

#### 09 협회장 동정

-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벤처투자-기술보증 업무협약 체결식 참석

#### 10 회원사 소식

## 11

### 이슈 ISSUE

#### 1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벤처캐피탈이 시너지를 내려면

#### 14 2017 홍콩 추계 전자전 참관기

#### 18 최근 10년 글로벌 벤처캐피탈 동향

#### 19 VC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 개선 현황

#### 20 벤처캐피탈 법률 Q&A

## 21

### 시장 동향 Market Trend

#### 22 9월 벤처투자 시장 동향

#### 28 (VC 포커스) 해외 3분기 벤처캐피탈 통계(중국, 유럽)

#### 32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발행일 2017년 11월 10일(통권 113호 11월)

발행인 이용성

편집인 오세현

발행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전화 02)2156-2100 홈페이지 [www.kvca.or.kr](http://www.kvca.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뉴스 & 리뷰

NEWS & REVIEW



## 2017 LP-GP 교류회 개최

10월 31일(화) 르메르디앙 서울 호텔에서 주요 출자기관(LP)과 국내외 벤처캐피탈(GP) 간의 교류회를 개최했다. 협회 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된 약 40명의 참가자는 최근 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IFRS9 및 IPEV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 및 개정 투자계약해설서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등을 진행하고, 출자기관 및 투자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 사우디아라비아 민관합동 경제사절단 협회 방문

사우디아라비아 젓다 상공회의소는 사우디 중기청, 투자청, 여가청 등 정부 공무원과 민간 기업 등 총 21명의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10월 25일(수) 본 회 및 한국벤처투자를 방문했다. 사절단은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한국에 머물며 중소벤처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관련 기관을 방문했다. 협회는 방문 사절단 미팅에 참석해 회원사, 투자동향 및 주요 사업 등 협회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 벤처캐피탈 회계처리 대응방안 협의

10월 24일(화) VR빌딩 3층 대회의실에서 벤처캐피탈 회계처리 관련 대응방안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현행 K-IFRS와 관련하여 투자자산의 공정가치평가 등 회계기준을 점검하고 특히, 2018년 시행예정인 IFRS9에 대한 각사의 대응방안을 공유하여 업계 차원의 효과적 적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삼화회계법인에서도 참석하여 K-IFRS의 적용대상과 IFRS9 제정배경, 주요

내용, VC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브리핑하였으며, 이후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 및 공유사항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본 회의는 회의 전 미리 시행한 설문조사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참여 회원사들은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번 회의는 IFRS 시행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사무국 임직원 하반기 워크숍

9월 28일(목) 본 회의 사무국 임직원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외부 강사 초청 강의 및 등산(트래킹)을 통한 네트워킹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초청 강의는 '임직원 역량 강화교육'을 주제로 약 1시간 반가량 진행되었고 강의 이후에는 청계산으로 이동하여 트래킹 및 석식으로 마무리하였다. 임직원들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11월 교육 안내

- **교육명**  
글로벌 벤처캐피탈리스트 인재 양성 과정
- **운영 형태**: 8일 출석(수, 목 주 2회 총 4주)
- **일자**: 11월 1일(수) ~ 11월 23일(목)
- **대상자**: 창투자, LLC, 신기술금융사, 기타 일반 등
- **과정 개요**: 해외 투자 동향 및 사례 파악, 해외 투자 관련 실무 습득
- **신청 기한**: 10월 27일까지
- **신청 방법**  
본 회 홈페이지(www.kvca.or.kr)  
온라인 신청

- **교육명**: 비상장주식 분석과정
- **운영 형태**: 2박 3일 합숙
- **일자**: 11월 15일(수) ~ 11월 17일(금)
- **대상자**: 벤처캐피탈 및 금융업계 종사자, 유관기관 등
- **과정 개요**: 산업별 사업 타당성 분석 및 비상장사 투자 관련 실무 이해도 제고
- **신청 기한**: 11월 3일까지
- **신청 방법**  
본 회 홈페이지(www.kvca.or.kr)  
온라인 신청

- **교육명**: 제2차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교육
- **운영 형태**: 1일 출석
- **일자**: 11월 29일(수)
- **대상자**: 창업투자회사 재직자 중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
- **과정 개요**: 벤처캐피탈 업계 현황 파악 및 직업윤리 강화
- **신청 기한**: 11월 17일까지
- **신청 방법**  
본 회 홈페이지(www.kvca.or.kr)  
온라인 신청

## 2017년 제23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 개최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은 벤처캐피탈 관련 전반적인 내용의 이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통과정과 심사보고서 작성 및 팀별 발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필수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과정 모두 이수 시 창업투자회사 재직자에 한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펀드 규모의 확대 등 벤처투자 활성화로 인해 금번 교육은 접수가 하루 만에 마감되는 등 벤처캐피탈 교육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8년에는 본 과정의 연 3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 **일자** 공통과정: 2017년 10월 16일 ~ 10월 20일 (4박 5일 합숙)  
필수과정: 10월 25일 ~ 10월 27일 (3일 출석)
- **장소** 공통과정: 여주 썬밸리호텔 / 필수과정: 서울 강남 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

| 공통과정                                                             |                                                                                                                                      |
|------------------------------------------------------------------|--------------------------------------------------------------------------------------------------------------------------------------|
| 내 용                                                              | 강 사                                                                                                                                  |
| 벤처캐피탈 개요 및 필수 용어 정리                                              | 비에이파트너스 상무 이정석<br>인라이트벤처스 파트너/상무 손민호                                                                                                 |
| 한국의 벤처캐피탈산업 - 역사 및 투자 동향, ISSUE 등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김형수                                                                                                                     |
| 벤처캐피탈 투자방법 및 투자단계별 특징                                            | 엘비인베스트먼트 전무 구중희                                                                                                                      |
| 벤처캐피탈과 법률<br>• 법률 용어 해설 • 창지법, 벤처법, 자통법 등                        | Cosmos Incubator 대표/변호사 이종경                                                                                                          |
|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및 Due-Diligence 사례                                    | 프리미어파트너스 상무 김성은                                                                                                                      |
| Valuation & Pricing                                              | 서울대학교 교수 이영민                                                                                                                         |
| 중국 VC와 투자 사례                                                     | 엘비인베스트먼트 대표 박기호                                                                                                                      |
| IPO와 회수전략에 대한 이해 - 코넥스, SPAC 등                                   | 에스브이파트너스 상무 김희천                                                                                                                      |
| 벤처캐피탈과 지식재산권                                                     | 아이디벤처스 수석팀장 강훈모                                                                                                                      |
| 벤처기업 M&A 절차 및 사례                                                 | 티에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웅                                                                                                                      |
| 창업과 초기기업투자                                                       |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대표 윤건수                                                                                                                    |
| Private Equity 및 투자 사례                                           | 스틱인베스트먼트 부사장 정한설                                                                                                                     |
| VC 투자 핫 이슈, 전문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는다.<br>(딜소싱, Valuation 등 투자 사례) - 바이오 |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상무 오성수                                                                                                                    |
| VC 투자 핫 이슈, 전문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는다.<br>(펀드의 운용 사례 및 회수전략 등) - 문화콘텐츠   | 케이티비네트웍 상무 이승호                                                                                                                       |
| 필수과정                                                             |                                                                                                                                      |
| 내 용                                                              | 강 사                                                                                                                                  |
| 심사보고서 작성 실무 및 Case Study (딜소싱, Valuation & Pricing 포함)           |                                                                                                                                      |
| (1) 제조/전기/기계/장비                                                  |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이사 정영관                                                                                                                     |
| (2) 바이오                                                          | 엔에이치엔베스트먼트 투자이사 김준일                                                                                                                  |
| (3) ICT 서비스/유통 서비스                                               | 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 부사장 이범준                                                                                                                  |
| • 비상장기업 재무(부실예측) 분석(업종별 Case Study)<br>• 추가 투자 검토 시 재무관점 포인트     | 신정회계법인 이사/회계사 박상학                                                                                                                    |
| 투자계약서 작성 실무 및 Case Study                                         |                                                                                                                                      |
| (1) 신주(RCPS) 인수 투자계약서 (Refixing, Tag-along, 이 해관계인 등)            | 법무법인 이후 대표 변호사 이종건                                                                                                                   |
| (2) CB, BW 투자계약서                                                 |                                                                                                                                      |
| 벤처캐피탈 설립 및 벤처조합 운용 실무(주요 tax 포함)                                 | 미라파트너스 대표 박미라                                                                                                                        |
| VC의 Fundraising: 펀드 기획과 제안기법                                     |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실장 한철호                                                                                                                     |
| 심사보고서 팀별 발표, 질의응답,<br>심사위원단 팀별 총평, 평가<br>우수팀 시상                  | 심사 위원: 정영관 이사(유안타인베스트먼트)<br>김준일 투자이사(엔에이치엔베스트먼트)<br>이범준 부사장(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br>이종건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이후)<br>손민호 상무(인라이트벤처스)<br>김동훈 회계사(신정회계법인) |

## 환경산업 투자유치 지원

### 제3차 유망 환경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10월 18일(수) 「제3차 유망 환경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앞서 9월 13일과 20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3차 설명회에는 환경 플랜트 전문기업 유진에코 씨엘, 산업용 근로자를 위한 고체산소 마스크를 생산하는 오투엠 등 투자 유망 환경기업 총 4개사와 삼호그린 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등 벤처캐피탈 총 6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투자 상담 및 IR이 진행되었다. 본 회는 향후 △ 투자콘퍼런스(11월), △ 해외투자로드쇼(11월) 등을 통해 투자 유망 환경기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 제3차 환경기업 투자유치 자문단 간담회

지난 8월부터 매월 1회씩 진행된 제3차 환경기업 투자유치 자문단 간담회가 10월 18일(수)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정책 논의 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기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더웰스 인베스트먼트 등 벤처캐피탈 6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대전과 환경투자콘퍼런스의 행사 소개,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미래유망환경펀드 운영발전 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본회는 익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매월 진행되며 이를 통해 환경산업 투자유치에 대한 정책 등 환경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M&A 활성화 지원 사업

### 10월 M&A 매칭데이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회는 10월 30일 (월) 오후 3시 삼성동 메디톡스 빌딩 B1 회의실에서 M&A 매칭데이를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M&A 거래정보망 등록기업, 중소·벤처기업, 자문기관 등 M&A를 희망하는 매도·매수기업이 참여하였으며, 1:1로 진행되는 매칭 상담을 위해 매도기업별 회의실을 별도 배정하여 깊이 있는 논의와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작년 9월 이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M&A 매칭데이는 지난 1년여 동안 약 100여 개사에 달하는 M&A 희망 매도·매수기업이 참가하였으며, 매도·매수 수요그룹 발굴, 네트워크 구축, 투자유치 등 매도·매수기업 간 M&A를 비롯한 다양한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논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협회 M&A 센터에서 업종별, 희망유형별, 희망금액별 등으로 매도·매수기업에 가장 적합한 매칭상대방을 사전에 발굴하여 추천함으로써 참가기업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으며,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참가기업 중 약 50% 이상의 기업들이 추가상담 및 M&A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협회는 향후 테마별 매칭, 초기창업기업의 기술수요그룹 매칭 등 다양한 유형의 M&A 매칭데이를 확대 추진하고, 실질적인 M&A 성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M&A 거래 정보망 ([www.mna.go.kr](http://www.mna.go.kr))



## 벤처투자 사랑방

### 10월 벤처투자 사랑방 개최

협회는 지난 24일 '10월 벤처투자 사랑방'을 개최하였다. 미르케미칼 등 중소·벤처기업 8개사와 인터베스트 등 벤처캐피탈 3개사가 참석하여 기업의 투자유치, 자금조달에 대한 1:1 투자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벤처투자 사랑방'을 통하여 벤처투자를 중소·벤처기업에 알리고 투자기관이 직접 투자유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다양한 기업과 투자기관을 만날 수 있어 참여 기업과 투자기관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매월 개최되는 '벤처투자 사랑방'은 아래 주소를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벤처투자 사랑방 참여 신청 링크 (<http://cafe.kvca.or.kr>)



## Tech-Up Day 개최

본회는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스타벤처 육성 R&D 과제' 선정기업을 대상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인 Tech-up Day를 지난 10월 27일(목) VR빌딩에서 개최하였다. 전략적 투자(한화 CVC), 바이오·의료 라이선싱 아웃(파마페닉스), 중견기업 협업 상담(코맥스)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 행사에는 5개 기업이 참석하였다. 본회는 행사에 참여한 기업의 성과제고를 위해서 기술평가 비용 연계지원, 기술자료 코칭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 해외진출 유망기업 IR 개최

본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큰 국내 벤처기업의 사업화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 유망기업 IR'을 10월 31일(화) VR빌딩에서 개최했다. 이번 매칭데이는 본회가 운영 중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스타벤처 육성 R&D 과제' 선정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기업 5개사와 투자기관 12개사가 참여하였다. 행사는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의 피칭(Pitching)과 투자기관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회는 해외진출 유망기업 IR 외에 선정기업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해외 진출 세미나, 기술코칭, 해외 현지 로드쇼 등을 진행하고 있다.



\* 글로벌스타벤처 육성 R&D 과제는 국내외 우수 VC 투자기업 및 지역별 추천기업 중 해외 투자유치, 글로벌 M&A, IPO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큰 기업의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협회가 운영기관으로 사업을 수행



## R&D 기획역량 강화교육 개최

본회는 지난 10월 31일(화) 협회 블루룸(지하 1층)에서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운영기관으로 'R&D 기획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였다. VC 투자기업 등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R&D 기획역량 내재화를 촉진하는 교육이다. 이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최신 정책 동향과 R&D 수행을 위한 이론 및 기법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 협회장 동정

## NEWS & REVIEW

##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벤처투자-기술보증 업무협약 체결식 참석

본회 이웅성 회장은 10월 24일(화) 서울플라자호텔 오크룸에서 개최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벤처투자-기술보증'에 대한 MOU 체결식에 참석하였다. 이웅성 회장과 함께 최수구 중기부 차관, 조강래 KVIC 사장 및 김규옥 기보 이사장이 참석한 이번 체결식에서는 협회 및 KVIC(한국벤처투자) 등의 투자기관과 중기부로 이관한 기술보증기금 간 업무협약을 통해 정책 시너지 제고 및 혁신기업의 성장(Scale-up)을 도모하기로 협약했다. 협약은 ① 투자연계보증 신설: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5천억 원 특례보증 신설 ② 기술평가 정보공유: 협회 및 KVIC를 통한 VC 제공 우수 보증기업 기술평가서에 기반, 투자기업 발굴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삼는다.



##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최근 413억 원 규모의 'KDB-LH 중견기업 연합펀드 1호 펀드'의 1차 결성을 완료했다. 지방 중견기업들과 협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벤처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 러브콜을 보낸다는 방침이다. 이 펀드는 올해 라이트하우스컴바인에 합류한 제이슨 리 투자 총괄이 대표 펀드매니저를 맡았다. 제이슨 리 총괄은 엘앤에스벤처캐피탈 출신으로 지난 7월 회사에 합류했다. 핵심운용인력으로는 박열균 상무와 정무일 부장이 참여한다.

## 아이디벤처스

매각공고를 앞두면서 이르면 내년 초 대주주가 교체될 예정이다. 대주주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대표이사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달 중순 매각공고를 내고 원매자를 모집한다. 현재 매각 주관사를 통해 복수의 업체에서 인수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주아이비투자

투자한 지 5년 만에 케이피에스 주식 10만 주를 장내 매도해 약 14억 원을 회수했다. 투자 원금의 절반 정도를 회수한 것으로, 내부 수익률 약 20~25%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은 주식도 주가 흐름에 따라 엑시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유티씨인베스트먼트

최근 결성총회를 열고 150억 원 규모의 '유티씨 특허기술사업화투자조합(유티씨 모태IP 펀드 3호)'의 결성작업을 마무리했다. 대표 펀드매니저는 김세연 차장이 맡고 조현진 대리 등이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하여 동 조합을 통해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기업인 이문메드에 60억 원을 투자하였다.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기업인 이문메드에 60억 원을 투자했다. 'SV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펀드 2호'와 'SV 과학기술성장펀드'를 통해 각각 20억 원, 10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지난 2015년 3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후속 투자로 총 투자 규모를 60억 원까지 늘린 것이다. 이문메드의 기술 차별성이 뚜렷한 데다 전 임상 과정에서의 입증된 효능으로 다양한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확대된 것에 주목했다.

## 이노폴리스파트너스

'이노폴리스 2015 제조-IoT 투자조합'은 보유하던 엠플러스 주식 21만 3,003주(지분율 4.17%)를 장내에서 매각했다. 투자한 지 1년 만에 투자 원금의 4배 이상을 회수함으로써, 이미 투자 원금 이상을 거둬들였다. 엠플러스는 2003년 4월에 설립된 제조업체로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2차전지 조립공정 장비 제조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 케이비인베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 업체 피엔에이치테크에 투자를 집행했다. 'KB 코넥스 활성화 투자조합'과 '대성 세컨더리 투자조합'은 각각 15억 원(18만 주), 7억 원(8만 4,000주) 어치 RCPS를 취득했다. 피엔에이치테크는 2007년 5월 설립된 기업으로 유기합성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 재료를 자체 개발·생산하고 있다.

## 한국투자파트너스

시력 회복용 헬스케어 스타트업 에덴룩스(EDENLUX)에 대한 시리즈 A투자를 진행한다. '한국투자 글로벌 제약산업육성 사모투자 전문회사'와 '한국투자인더스트리 4.0 투자조합'을 통해 전환상환우선주 15억 원 어치를 인수기로 했다. 2014년 설립된 에덴룩스는 시력 회복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해온 의료기기 전문 스타트업이다.

## 사무실 이전

| 회사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엘앤에스벤처캐피탈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86길 7<br>(대치동 삼성빌딩 9층)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해성빌딩 7층 |



# 이슈

I S S U E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벤처캐피탈이 시너지를 내려면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 센터장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



지난 수년간 한국의 스타트업생태계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크게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벤처투자액은 2조1천5백억 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이 같은 투자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예산 8천억 원의 모태펀드 추가 투입으로 또 수많은 벤처펀드가 결성돼 내년도 벤처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활기를 띠는 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변화 속도 이상으로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스타트업생태계가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 1조 가치가 넘는 유니콘 스타트업이 전 세계에 약 1백 개 정도였는데 지

금은 230여 개가 됐다. 그중 절반은 미국에, 그리고 4분의 1은 중국에 있다. 한국의 유니콘 스타트업은 2014년 쿠팡, 옐로모바일이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한국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스타트업이 적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라이드셰어링, IoT, 로봇 등과 관련된 소위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의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 이런 기술을 가진 이공계 대학 인재, 연구원, 대기업 엔지니어들이 활발하게 창업에 도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과도한 규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 과감한 투자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 벤처캐피탈(VC) 주도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스타트업이 많아지도록 할 수 있을까. 필자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블루홀 스튜디오 같은 유니콘 스타트업을 직접 키워내고 수많은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해온 장병규 위원장은 "성장기에 접어든 스타트업에 큰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 VC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변화해 나갈 방향에 관해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우선 스타트업에 차별화된 가치를 부여할 VC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좋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명문 VC들이 각자가 제공할 가치를 창업자들에게 제시하며 경쟁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러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 VC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을 만나며 노력한다. 뛰어난 실리콘밸리 VC들은 기본적으로 열린 사고와 엄청난 인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인상이었다. 그들은 이 자산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에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주고 심지어는 M&A딜까지 만들어낸다. 반면 한국의 창업자들은 아직도 VC가 자금만을 투자해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이런 인식에 변화가 생기기 기대해 본다.

실리콘밸리에는 성공한 창업가 출신이 VC로 변신한 사례가 많이 보인다. 페이스북을 창업한 피터 틸부터 앤드리슨 호로비츠의 마크 앤드리슨, 벤 호로비츠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도 창업 경험과 좀 더 다양한 배경을 갖춘 인재들이 VC 세계로 더 유입되어야 한다. 애플, 구글 같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많은 경험을 쌓은 뒤 VC로 변신하는 경우 또한 많다. 이렇듯 산업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이 VC가 된다면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과 창업자 입장에 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게 되므로, 앞서 말한 예와 같이 투자뿐 아닌 이후의 성장 단계에도 밀접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창업부터 엑시트까지의 풍부한 경험자들이 파트너로 포진한 본앤젤스 같은 VC가 더 많이 생성되길 희망한다.

한편 VC가 국내 스타트업에만 투자해서는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기 어렵다. 좀 더 글로벌한 안목을 갖춘 채 외국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해외 VC와 공동투자를 하며 인맥을 쌓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포트폴리오 회사의 해외 진출 또는 해외 투자 타이밍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알토스벤처스의 김한

준 대표는 매년 코리아펀드의 해외 LP들을 서울로 초청해 한국 스타트업생태계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설명하고, 추가 투자를 권유한다. 쿠팡이 세콰이어캐피탈에 투자를 받고, 비바리퍼블리카가페이팔에게 추가 투자를 받은 데엔 이런 김 대표의 글로벌 인맥이 큰 도움이 됐다.

또한, 향후 벤처캐피탈의 본질인 고위험 고수익 딜에 과감한 베팅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VC가 더욱 증가하였으면 한다. 모두가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여기던 미친 아이디어에서 소위 대박이 나올 수 있다. "낮선 타인의 집 침대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는가"라며 황당한 아이디어 취급을 받던 초기 에어비앤비에 세콰이어캐피탈의 그레이그 맥커두는 58만 불을 과감하게 투자했다. 이 베이에 일찍 투자해 성공을 거둔 그는 남은 유휴공간에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나올 것을 짐작해 그러한 비즈니스모델의 스타트업을 찾고 있던 것이다. 그는 마침 눈에 띈 에어비앤비에 과감한 투자를 감행했고, 세콰이어캐피탈의 에어비앤비 투자 지분은 현재 5~6조 원 가치가 됐다. 이처럼 VC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한 스타트업이 충분히 성장해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을 때까지 믿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국내 VC들에게 받을 수 있는 투자자금은 200억 원 정도가 한계인 것 같다"라는 한 창업자의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글로벌한 스타트업투자생태계가 차츰 거대자본 주도하에 '편의 전쟁'이 되어가는 만큼 국내 VC들의 펀드 규모도 더 커져야 하며, 초기 단계나 시리즈 A 투자뿐 아니라 시리즈 B, C, D 단계에도 수백, 수천억 원을 투자할 수 있을 만큼 국내 VC 투자 여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일례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에 적극적 투자 중인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는 총 1,000억 불, 즉 100조 원을 넘어선 규모이다. 한 번에 수천억에서 1조 원까지를 인공지능, 로봇, 핀테크 회사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전반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펀드 조성을 공공자금에 의존하는 국내 VC 생태계의 체질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다행히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로 높아짐에 따라 LP가 될 수 있는 국내외 대기업, 펀드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VC는 다양한 국내외 민간 LP를 확보하고 보다 큰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모쪼록 벤처생태계의 밑거름이 되는 스타트업을 '혁신 성장'시키기 위해 앞서 제안한 방향으로 벤처캐피탈이 먼저 혁신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2017 홍콩 추계 전자전 참관기



이석재  
원익투자파트너스 상무



The Tech Hall spotlights high-end technologies, including Startup, Virtual Reality, Robotics & Unmanned Tech, Smart Tech and 3D Printing

[전시회 홈페이지(<http://m.hktdc.com/fair/hkelectronicfairae-en/>)에 소개된 로봇 제품 시연을 살펴보고 있는 필자의 모습]

2017년 10월 13~16일 아시아 무역의 중심지 홍콩(Hong Kong)에서 열린 '2017 추계 홍콩 전자전'을 참관하고 돌아왔다. 올해로 37회째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 '2017 홍콩 전자전'은 전기전자 부품업체들을 위한 초대형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인 'Electronic Asia 2017' 행사와 동시에 개최되어, 역대 최대 규모인 25개국 3,700여 개 업체들이 참여하여 139개국에서 온 86,000여 명에 이르는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 전시회는 세계적인 가전업체들은 물론, 중국 본토에서 참가한 1,900여 개의 전기전자 부품업체들을 포함, 특히 인공지능, 가상현실, 로봇, IoT 기반 스마트홈 솔루션 등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들이 대거 참여해 바이어와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기업들도 KOTR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한국관에 1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여 차별화된 제품과 사업모델을 통해 해외 판로개척을 타진했다. 세계의 제조 공장지로 떠오른 중국 심천(深圳)과 동관(東莞) 지역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홍콩 개최 전시회인 만큼, 중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 국가들 전자 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우리 전자 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현장이었다. 특히, 벤처캐피탈 심사역으로서 우리나라 IT 제조업 경쟁력에 적지 않은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있던 필자는 더 치열해진 경쟁 현실에 관한 확인과 함께 희망적인 현상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중국 부품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제품 업체들도 소위 끝마무리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었던 디자인이나 완성도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Me-Too'라 불리는 모방형 제품들을 생산해왔던 중국 회사들이 새로운 디자인 컨셉을 추가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며 한층 더 기술관(Tech Hall)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반면, 북미지역과 우리 시장에서 검증된 신기능과 사양을 통해 생산자, 유통자의 역할이 분리된 상품성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니치마켓을 공략하려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변신 노력도 상당히 진전되었음이 느껴졌다.

크게 다섯 가지 주제 <명품관(Hall of Fame), 기술관(Tech Hall), 창업관(Start-up zone), 전자부품관(Electric Asia), 혁신기술 심포지엄>로 진행된 본 박람회는 연결사회(Connected Living)를 주제로 한 홍콩 행정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기술 심포지엄으로 시작됐다. 'AR과 VR, 그리고 Mixed Reality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을 촉진할 것이며 미래 우리 사회 곳곳에 MR, IoT, 스마트 클라우드가 파고들게 될 것'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홍콩) 대표의 발제 연설과 함께 스마트 시티를 말한 텐센트와 머신러닝에 관한 구글의 연설이 이어졌다. 자율주행을 완성하기 위한 3가지 요소(Sensing, Mapping, Policy)에 관한 모빌아이의 발표내용도 매우 실무적인 주제였다. 중화권 IT산업의 주요 리더들은 한결같이 초연결사회를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을 강조하고 있었다.

전시장 1층 메인홀에 자리 잡은 명품관(Hall of Fame)에서는 Binatone, Goodway, Motorola, Vtech 등 국제적 브랜드 지명도를 가진 550여 개 제조업체들이 바로 소매시장에 유통할 최신 전자제품을 찾는 구매자들을 맞이했다. 특히 일반 관람객들에게 인기 높은 제품군인 개인용 Gadget, 스마트 액세서리, 웨어러블 기기,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용 이미징 디바이스, 통신기기 등을 테마로 'i-World' 구역을 별도 운영하여 시선을 끌었다. 한편, 소규모 수량(5-10)의 샘플 제품을 찾는 구매자들을 위해 'Good

Deals'라는 카탈로그를 발행하여 전시장 입구 진열대에서 실물을 확인한 후, 웹이나 모바일로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점은 구매자와 현장 중심을 지향하는 본 박람회의 성격을 잘 드러내 주었다.

필자를 포함한 벤처캐피탈 심사역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본 기술관(Tech Hall)과 창업관(Start-up zone)의 주목할 현상은,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주도 기술 분야인 가상현실(VR & AR), 드론, 3D 프린터, 로봇, IoT 등 첨단 제품군 또한 가격 경쟁력 있는 범용 제품으로 시장에 대량 선보여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중국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드론, 3D 프린터와 개인용 모빌리티 분야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져 보였다. 기술관(Tech Hall)에 전시된 한 중국 소재 드론회사(Elanview Technology)에서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담뱃갑 크기의 4K HD급 셀프 카메라용 드론(Air Selfie)을 선보였는데, 필자가 직접 시연해 본 결과, 구매 욕구가 일어날 만큼 화질 상태와 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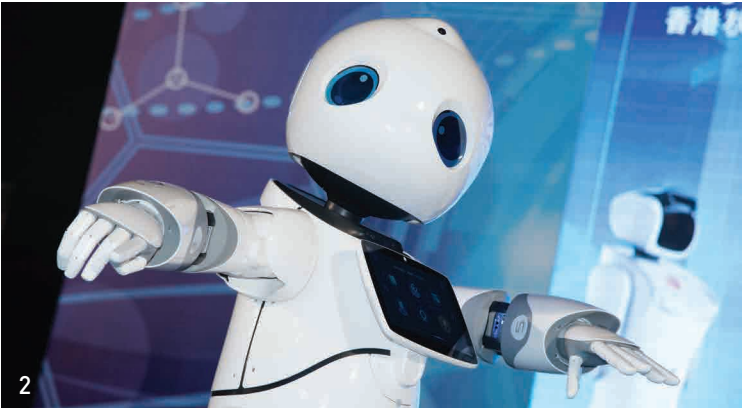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7홍콩전자전 참관단



● 소규모 샘플 구매자들을 위한 'Good Deals' 진열





안정성, 제품 디자인 그리고 가격대가 만족스러웠다.

창업관(Start-up zone)에서는 중국은 물론 미국·캐나다·홍콩·대만·일본 등지에서 참여한 100여 개 스타트업들이 성장궤도 진입에 앞서 의미 있는 거래처를 찾고자 적극적 홍보 활동을 펼쳤다. 미국의 한 창업기업(Ono 3D)은 스마트폰에 부착하여 폰의 광원을 이용, 수지를 경화하는 초소형 저가 3D 프린터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많은 관심을 끌었다. 로보틱스와 무인기술 주재관에서는 중국 동관 지역의 개인용 모빌리티 업체(Dongguan Robstep Robot)가 출품한 호버보드가 양호한 주행거리(20km)와 휴대성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사전 주선한 잠재적 구매자, 투자자 간 미팅을 통해 현장 실거래 성사에 노력한 주최 측의 치밀한 기획력이 전반적으로 돋보였다.

비록 창업관에서는 볼 수 없어 아쉬움이 컸지만, 우리 기업들도 전시관 5층에 위치한 'Korea Pavilion'에 100여 개 ICT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독특한 기능성 제품들을 선보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경각심이 높아진 것에 착안하여 스마트폰 기반의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치를 선보인 'FT Lab', 쇼케이스 내부에 광고할 제품 실물을 넣고 해당 콘텐츠를 보여줌으로써 광고효과를 극대화한 투명 LCD 터치 모니터 '한스정보', IoT 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폰용 앱으로 복약시간 알림, 보호자 알림, 복약기록 등 복약 관리기능을 갖춘 스마트 약통 'IoTeen', IoT 센서를 탑재하여 온도와 습도, CO2 및 VOCs 등 대기 중 유해성분을 측정하고 청정도를 조절하는 제품 'SmartCityGrid'를 비롯하여, VR 기술을 적용한 훈련용 시뮬레이터를 출품한 '3Di'가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본 박람회에서 가장 큰 전시공간을 할애했 전자부품관(Electronic Asia)에는 주로 중국 본토와 대만 등지에서 참여한 2,200여 부품

업체들이 현장에서 즉석 구매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관람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블루투스 헤드셋과 스피커 등 오디오 제품군, CCTV와 영상저장장치 등 보안 제품군, 내비게이션과 전장부품 등 차량용 제품, 친환경 배터리와 파워 서플라이 등 그린에너지 제품군은 물론이고, 조명기구로부터 밥솥, 믹서에 이르기까지 각종 생활가전 제품군 등 수많은 제품군의 부품업체가 참여하여 경쟁력 높은 가격에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있었다. 글로벌 Sourcing이나 무역을 희망하는 바이어들은 꼭 둘러봐야 할 전시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참여 업체 수에 비해 각 업체의 차별성을 느끼기 어려웠고 일반 관람객들보다 대량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소수의 바이어들 위주로 참관이 진행되어 아쉬움을 불러일으켰다.

전체적으로 본 전자전을 둘러보며 느낀 점은 세계 최대의 전자 부품 Sourcing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주최자 홍콩무역청이 분명한 목표에 따라, 모든 전시일정과 행정지원이 철저히 구매자 중심의 실리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진행을 하였으며, 홍콩행정부의 적극적인 정책협조가 부러움을 자아낼 수준이라는 것이다. 반면, 중국 본토에서 참여한 다수 기업이 단순 전자부품이나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미래형 첨단제품을 최초로 선보일 홍보의 장과는 거리가 있어 신기술 조사 목적에 다소 미흡하였으며, 또한 세계 최대의 마켓 플레이스로 성장했다는 하나 북미와 유럽 업체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필자는 본 전자전을 통해 이미 생활 속에 4차 산업혁명이 깊숙이 자리매김하여 일상생활과 연계되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굳이 초연결사회를 강조한 IT업계 리더들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관념적인 스마트함을 넘어서, 생활 속에서 평소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제품들이 합리적인 가격대에 이미 시장에 출시되고 있었다. 우리 기업들도 양호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우리 기업들이 특히 중국의 기업들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독자적 플랫폼 구축에 대한 집착보다 상품기획과 생산, 유통, 마케팅을 분리하여 경쟁력 있는 주체가 담당하는 과감한 Outsourcing 전략이 필요해 보였다.

끝으로 본 전시회 참관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해주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참관을 마무리한다.

1. 국제적인 브랜드 제품들을 전시한 명품관
2. Robotics & Unmanned tech zone의 로봇제품
3. Intelligent Cloud에 관한 MS(HK) 대표의 연설
4. 기술관에 소개된 중국 드론회사(Elanview Tech)
5. 중국 개인용 모빌리티 업체의 호버보드
6. 창업관에서 열띤 홍보를 펼치는 스타트업들
7. 우리 ICT기업이 대거 참여한 Korea Pavilion
8. VR기술을 도입한 시뮬레이터를 전시한 '3Di'



# 최근 10년 글로벌 벤처캐피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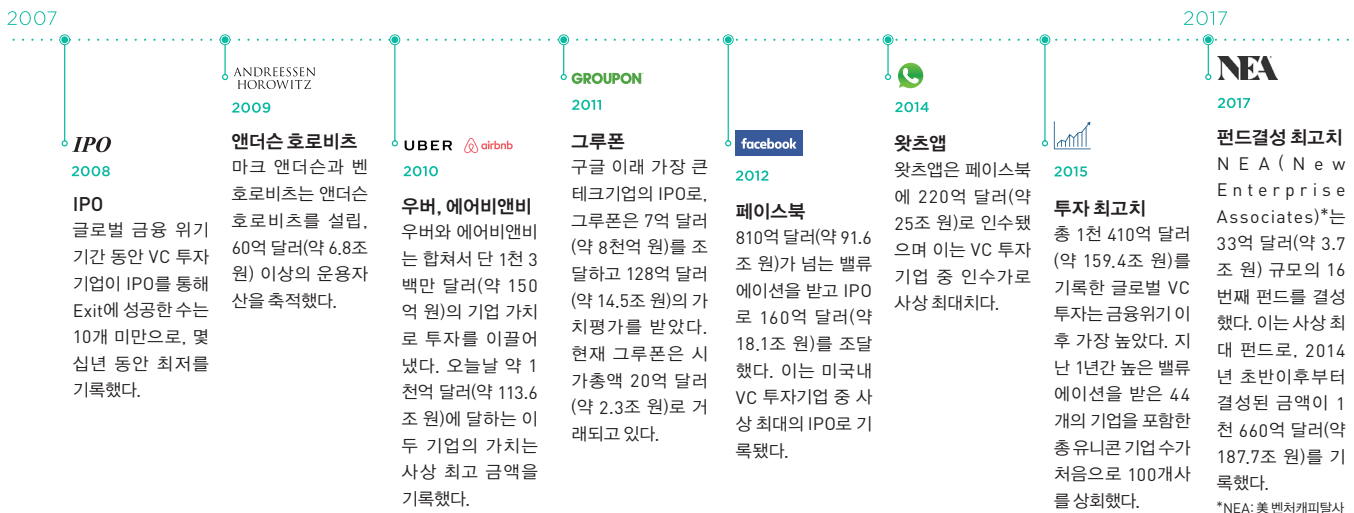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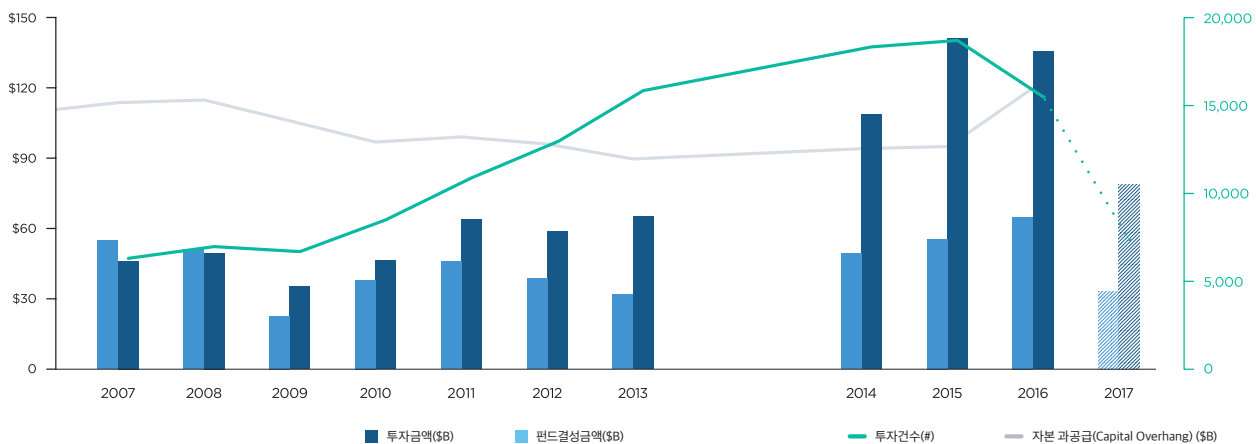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전 세계 벤처캐피탈 시장이 활기를 띠었다.

비록 투자 건수는 2015년에 최고치를 경신한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큰 규모의 투자가 집행되고 투자시 높은 밸류에이션이 이루어 지는 등 현재까지도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펀드 결성 규모가 커지고 있는 덕분에 많은 투자금이 쌓였고, 이를 통해 벤처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아래에 벤처캐피탈 10년의 동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그래프 및 키워드를 정리했다.

연도별 신규 투자 금액, 건수 및 펀드결성금액의 추이는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도별 주요 키워드를 통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뉴스를 요약했다.



이 글은 PitchBook에서 발간하는 매거진 "The Private Market PlayBook" 2017년 9월호에 게재된 리포트의 일부를 요약 번역한 것이므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문 링크: <https://pitchbook.com/news/reports/2017-private-market-playbook>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10. 17. 시행)

## 개정 이유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시, 필요한 납입 자본금을 완화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자본금 완화(제9조 제1항 제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자본금을 20억 원으로 완화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담보 제공 또는 채무 보증 금지 규정 명확화(제10조 제4항 제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으로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br>1. 납입자본금이 <u>50억 원</u> 이상일 것<br>2. (생략)<br>② ~ ⑦ (생략)                                                                                                                                                                                                                                            | 제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 .....<br>.....<br>1. .... <u>20억 원</u> .....<br>2. (현행과 같음)<br>② ~ ⑦ (현행과 같음)                                                                                                                                                            |
| 제10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 법 제15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r>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br>2. ~ 5. (생략)<br>②·③ (생략)<br>④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br>1.·2. (생략)<br>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u>자산으로</u>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br>4. ~ 8. (생략)<br>⑤·⑥ (생략) | 제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 .....<br>.....<br>1. 「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u> 」 제8조의2 제4항 제1호 .....<br>.....<br>2. ~ 5. (현행과 같음)<br>②·③ (현행과 같음)<br>④ .....<br>.....<br>1.·2. (현행과 같음)<br>3. .... <u>자산으로 타인을 위하여</u> .....<br>..<br>4. ~ 8. (현행과 같음)<br>⑤·⑥ (현행과 같음) |

#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 Q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내용

| 종류        | 소유 주식 비율                  |                                |
|-----------|---------------------------|--------------------------------|
|           | 비상장 회사                    | 상장회사                           |
| 주주총회소집청구권 | 100분의 3<br>(상법 제366조 제1항) | 1,000분의 15<br>(상법 제542조의6 제1항) |

### 1. 의의

-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규정(상법 제366조)
- 주주의 공익권의 하나로 인정되는 제도

### 2. 요건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sup>1)</sup>(상법 제366조 제1항)
- 「발행주식 총수」와 「100분의 3」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주식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반대의견 있음)
-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상법 제366조 제1항)
- 회의의 목적 사항은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어야 함
-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지체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함(상법 제366조 제2항); 이 경우도 이사회 소집 결정을 필요로 함. 소집의 이유가 상당하지 못한 경우 소집절차를 밟지 않음

### 3. 소수주주의 소집청구<sup>2)</sup>

-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소집을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상법 제366조 제2항)
- 법원이 요건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 소집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명백한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 소집을 불허;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하나(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 제2항), 민사소송법에 의한 특별항고는 허용
- 소수주주가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은 경우 총회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소집을 결의하는 경우가 있으나, 동일한 안전에 대해서는 소수주주가 소집권자이므로 이사회가 소집한 총회는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것으로 부존재하는 총회로 보아야 함(수원지방법원 2007. 8. 30. 결정 2007카합392)
- 소집을 허가할 경우 법원이 소집 시기를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원이 시기를 정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얻은 소수주주는 소집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장기간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총회를 소집하는 소수주주는 회사의 일시적 기관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기준일 설정, 통지, 공고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의장을 선임할 수 있음(상법 제366조 제2항); 이는 의장을 선임함에 있어 법원이 정관의 규정에 구속받지 않음을 의미
-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해 회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수주주가 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음(상법 제366조 제3항)

1) 상장회사의 경우는 1,000분의 15 이상으로 완화된 대신 이 주식을 6월 전부터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함(상법 제542조의6 제1항)

2)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시장 동향

MARKET TREND

## 9월 벤처투자 시장 동향

## MARKET TREND

## 9월 신규 결성 조합 주요 현황

### 한 국 투 자

한국투자파트너스가 한국모태펀드의 올해 6월 수시 출자사업 운용사로 선정되어 71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 해당 펀드에는 성장사다리 펀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LP로 참여했다.

### 코 오 룡

코오롱 인베스트먼트가 520억 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결성했다. 투자 분야는 사물인터넷, 로봇, 바이오, 신소재 등 미래 신성장 사업 관련 기업이다. 코오롱 인베스트먼트는 현재 총 8개의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오롱 2017 신산업 육성 투자조합은 올해 처음으로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이다.

### 라이트하우스컴바인

올해 3월 설립된 라이트하우스컴바인 인베스트먼트가 첫 번째 펀드를 결성했다. 펀드 규모는 413억 원이며, 동남권 중견기업들이 다수 LP로 참여했다. 주요 투자 분야는 동남권의 전통 제조업체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벤처기업이다.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만큼 밀접하게 지방 기업들과 협력하여 외부 혁신 벤처기업 발굴에 주력할 예정이다.

- 2017년 9월에 22개가 신규로 결성되었으며, 이 중 창업 초기 펀드 7개, 세컨더리 펀드 2개, 여성 기업 지원펀드 1개가 포함되어 있다.
- 결성금액별로는 한국투자파트너스의 '한국투자 Industry 4.0 벤처펀드'가 710억 원으로 가장 컸고, 코오롱 인베스트먼트의 '코오롱 2017 신산업 육성 투자조합', 라이트하우스컴바인 인베스트의 'KDB-LH 중견기업 연합펀드 1호'가 각각 520억 원, 413억 원으로 결성되었다.

(단위: 억 원)

| GP명           | 구분    | 조합명                    | 결성<br>금액 | 목적<br>구분 | 투자 분야    |
|---------------|-------|------------------------|----------|----------|----------|
| 패스파인더에이치      | 창투자조합 | 패스파인더 청년창업 투자조합        | 150      | 창업초기     | 일반 기타    |
| 한국투자파트너스      | 창투자조합 | 한국투자 Impact 투자조합(17)   | 133      | 일반       | 중소·벤처 일반 |
| 세종벤처파트너스      | 창투자조합 | 세종 글로벌 청년창업 벤처펀드 2호    | 100      | 창업초기     | 중소·벤처 일반 |
| 한국투자파트너스      | 창투자조합 | 한국투자 Joint 투자조합(17)    | 152      | 일반       | 중소·벤처 일반 |
| 디티엔인베스트먼트     | 창투자조합 | DTNI-소프트산업육성 투자조합      | 150      | 여성       | 중소·벤처 일반 |
| 코메스인베스트먼트     | 창투자조합 | 코메스 2017-1 스타트업 그린투자조합 | 145      | 창업초기     | 중소·벤처 일반 |
|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  | 창투자조합 | 스노우볼투자조합 3호            | 25       | 일반       | 중소·벤처 일반 |
| 미래에셋벤처투자      | 창투자조합 | 미래에셋 하이테크 프론티어 투자조합    | 250      | 일반       | 중소·벤처 일반 |
| 한국투자파트너스      | 창투자조합 | 한국투자 Key 투자조합(17)      | 130      | 일반       | 중소·벤처 일반 |
|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 창투자조합 | CCVC-광주 청년창업펀드         | 100      | 창업초기     | 중소·벤처 일반 |
| 코오롱인베스트먼트     | 창투자조합 | 코오롱 2017 신산업 육성 투자조합   | 520      | 일반       | 중소·벤처 일반 |
|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 창투자조합 | KDB-LH 중견기업연합펀드1호      | 413      | 일반       | 중소·벤처 일반 |
| 대성창업투자        | 창투자조합 | 대성창업투자 신탁형 벤처투자조합      | 100      | 일반       | 중소·벤처 일반 |
|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 KVF   | 린드먼아시아투자조합12호          | 400      | 창업초기     | 중소·벤처 일반 |
| 코메스인베스트먼트     | KVF   | 코메스 2017-2 세컨더리 투자조합   | 38       | 세컨더리     | 중소·벤처 일반 |
| 네오플렉스         | KVF   | 경기-네오플렉스 슈퍼맨투자조합       | 340      | 일반       | 중소·벤처 일반 |
|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 KVF   |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2호 펀드       | 200      | 창업초기     | 중소·벤처 일반 |
| 케이런벤처스        | KVF   | 케이런 3호 하이엑스퍼트 투자조합     | 150      | 창업초기     | 중소·벤처 일반 |
| 한국투자파트너스      | KVF   | 한국투자 Industry 4.0 벤처펀드 | 710      | 일반       | 중소·벤처 일반 |
| 유틸리티인베스트먼트    | KVF   | 유틸리티특허기술사업화투자조합        | 150      | 일반       | 특허       |
| 케이앤투자파트너스     | KVF   | IBKC-케이앤 세컨더리1호 투자조합   | 200      | 세컨더리     | 중소·벤처 일반 |
| 보광창업투자        | KVF   | 보광25호 스포츠융복합s2투자조합     | 120      | 일반       | 중소·벤처 일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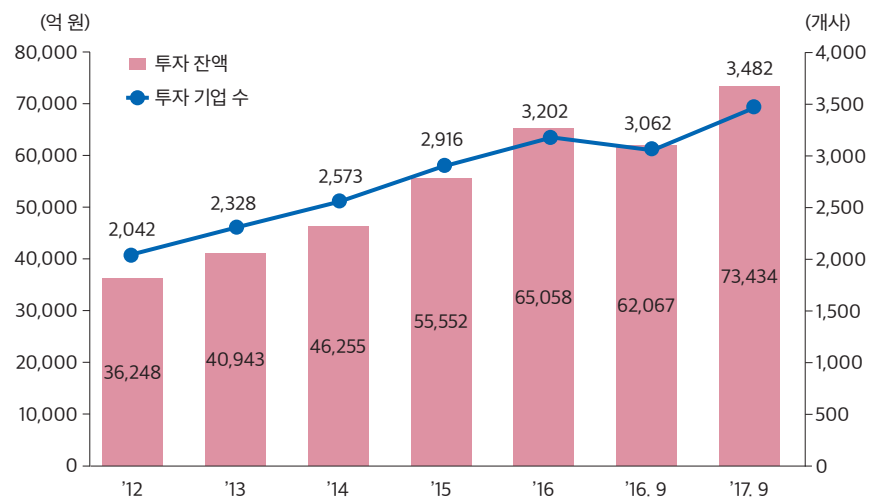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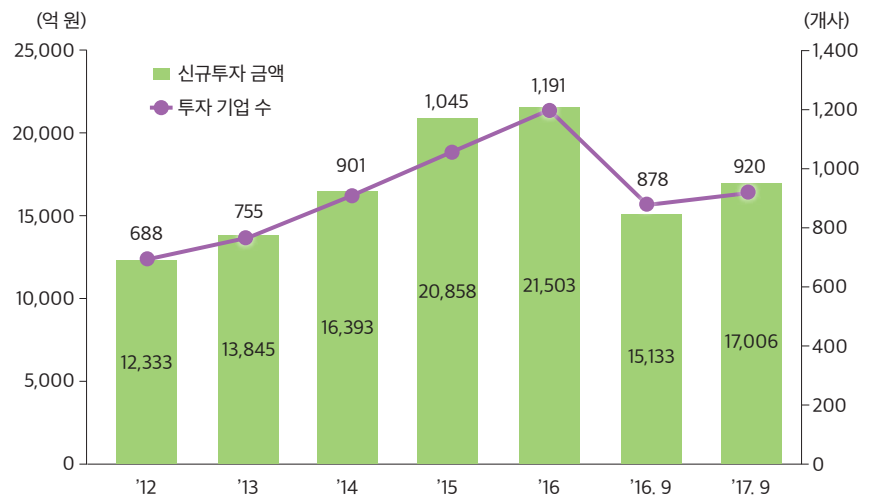


## 9월 벤처투자 시장 동향

### 신규투자

#### 전체 신규투자 및 투자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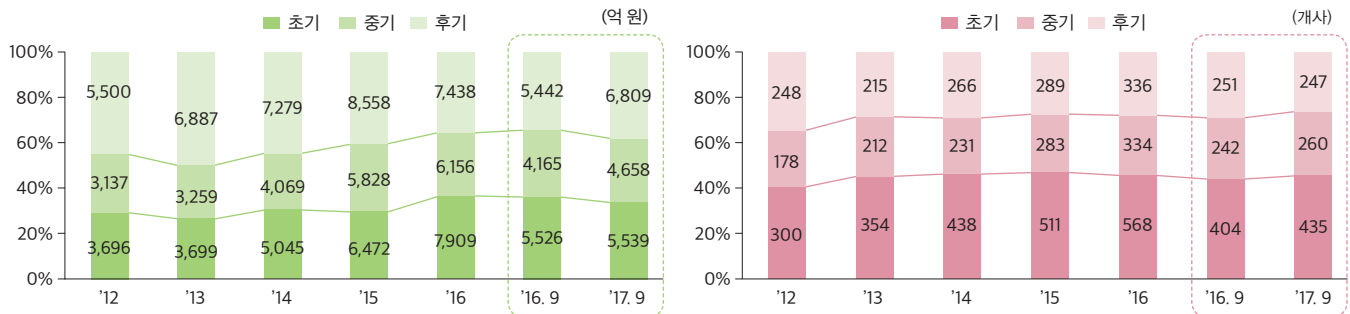
- 금년 9월까지 신규투자는 17,006억 원으로 전년 동기(15,133억 원)보다 12.4% 증가하였고, 투자업체 수는 920개사로 전년 동기(878개사) 대비 4.8% 증가하였다.
- 9월에는 I-Serve Holdings Limited가 113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PT Tokopedia, 엘애피코스메틱, 엘엠에스, 브릿지바이오, 지노믹트리, 와디즈, 안트로젠 등의 순이었다.
- 투자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년 9월까지 3,482개 업체에 7조 3,434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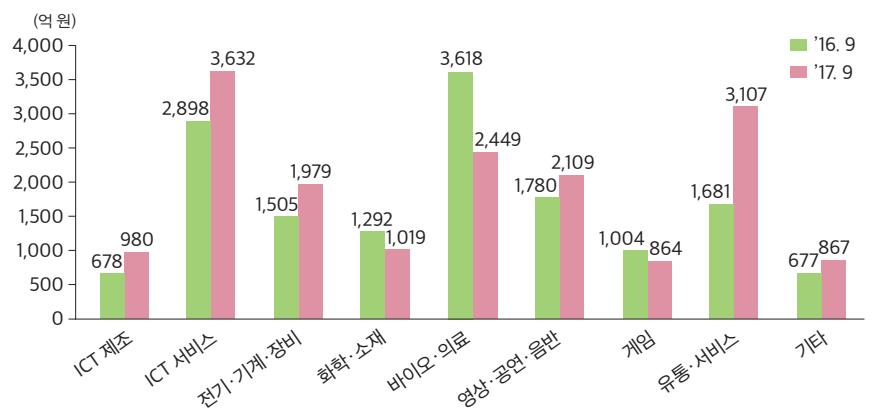
## MARKET TREND

업력별  
신규투자

- 금년 9월까지 후기기업 투자 비중이 40.0%로 가장 컸으며, 초기기업 32.6%, 중기기업 27.4% 순으로 투자가 되었다.

업종별  
신규투자

- 업종별로는 ICT 서비스 3,632억 원, 유통/서비스 3,107억 원, 바이오/의료 2,449억 원, 영상/공연/음반 2,109억 원 순으로 신규투자 되었으며, 유통/서비스 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1,426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바이오/의료 분야는 1,169억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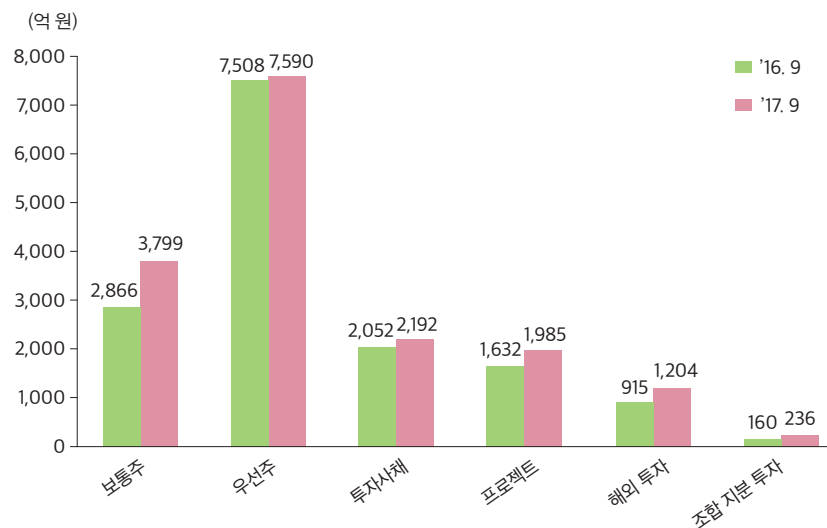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6. 9 | 2017. 9 |
|----------|--------|--------|--------|--------|--------|---------|---------|
| ICT 제조   | 2,099  | 2,955  | 1,951  | 1,463  | 959    | 678     | 980     |
| ICT 서비스  | 918    | 1,553  | 1,913  | 4,019  | 4,062  | 2,898   | 3,632   |
| 전기·기계·장비 | 2,433  | 2,297  | 1,560  | 1,620  | 2,125  | 1,505   | 1,979   |
| 화학·소재    | 1,395  | 989    | 827    | 1,486  | 1,502  | 1,292   | 1,019   |
| 바이오·의료   | 1,052  | 1,463  | 2,928  | 3,170  | 4,686  | 3,618   | 2,449   |
| 영상·공연·음반 | 2,360  | 1,963  | 2,790  | 2,706  | 2,678  | 1,780   | 2,109   |
| 게임       | 1,126  | 940    | 1,762  | 1,683  | 1,427  | 1,004   | 864     |
| 유통·서비스   | 608    | 1,092  | 2,046  | 3,043  | 2,494  | 1,681   | 3,107   |
| 기타       | 342    | 593    | 616    | 1,668  | 1,570  | 677     | 867     |
| 합계       | 12,333 | 13,845 | 16,393 | 20,858 | 21,503 | 15,133  | 17,006  |

## 9월 벤처투자 시장 동향

### 유형별·지역별 신규투자

- 투자유형별로는 우선주로 투자한 금액이 7,590억 원으로 전체 투자의 4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통주가 3,799억 원으로 22.3%였다. 해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89억 원 증가하였다.
- 보통주 투자가 전년 동기(18.9%) 대비 3.4%p 증가한 22.3%로 확대되었고, 프로젝트 투자는 11.7%로 전년 동기(10.8%) 대비 0.9%p 증가하였다. 해외투자 비중은 7.1%로 전년 동기(6.0%) 대비 1.1%p 증가하였다.



(단위: 억 원)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6. 9 | 2017. 9 |
|--------|--------|--------|--------|--------|--------|---------|---------|
| 보통주    | 2,403  | 3,425  | 3,297  | 4,226  | 4,437  | 2,866   | 3,799   |
| 우선주    | 4,887  | 5,038  | 6,103  | 8,786  | 10,398 | 7,508   | 7,590   |
| CB·BW  | 1,833  | 3,049  | 3,276  | 3,272  | 2,823  | 2,052   | 2,192   |
| 프로젝트   | 2,459  | 1,944  | 2,681  | 2,471  | 2,427  | 1,632   | 1,985   |
| 해외투자   | 751    | 389    | 1,036  | 1,951  | 1,147  | 915     | 1,204   |
| 조합지분투자 | 0      | 0      | 0      | 152    | 271    | 160     | 236     |
| 합계     | 12,333 | 13,845 | 16,393 | 20,858 | 21,503 | 15,133  | 17,006  |

- 지역별로는 서울(52.9%)을 비롯한 수도권(76.1%) 소재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지방 8.5%, 5대 광역시 8.3% 등의 순이었다. 해외기업에는 45개사 1,204억 원(7.1%)이 투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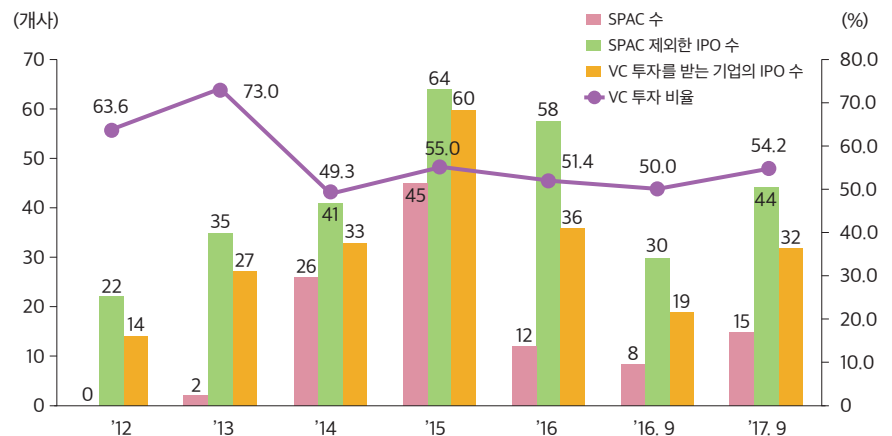


## MARKET TREND

## 투자 회수

## 유형별 회수

- 9월까지 회수원금은 5,927억 원이며, 그중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비중이 53.1%로 가장 높았고, IPO가 21.1%, 프로젝트가 17.1% 순이었다.
- 특히, 9월은 주식 투자의 회수비중이 높았는데, 53건의 거래를 통해 195억 원을 회수하였으며, 이 중 주식매각을 통한 회수가 166억 원(85.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식상환을 통한 회수가 20억 원(10.3%)이었다.
- 8월에는 코스닥시장에 11개사(케이피에스, 펄어비스, 샘코, 애플론, 선익시스템, 엠플러스, 유티아이, 신흥에스이씨, 에스엔피월드, 야스, 아이비케이에스 제8호 기업인수목적)가 상장되었으며, 이중 케이피에스, 펄어비스, 샘코, 애플론, 선익시스템, 엠플러스, 유티아이, 야스 8개사가 VC 투자를 받았다.



※ 자료원 : 한국거래소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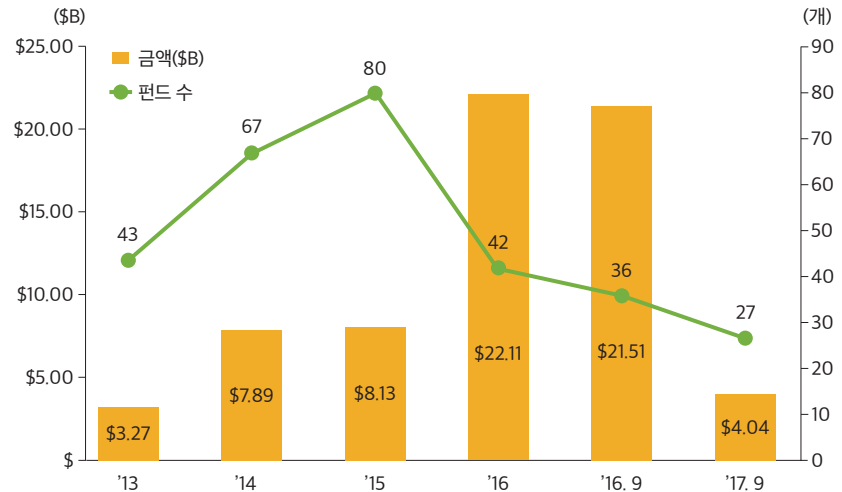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6. 9 | 2017. 9 |
|--------------|-------|-------|-------|--------|--------|---------|---------|
| IPO          | 1,220 | 1,072 | 1,411 | 2,784  | 2,817  | 2,310   | 1,247   |
| M&A          | 72    | 22    | 163   | 150    | 329    | 166     | 203     |
| 프로젝트         | 1,533 | 1,613 | 1,639 | 1,605  | 1,924  | 1,334   | 1,012   |
| 장외매각<br>및 상환 | 주식    | 2,655 | 2,363 | 3,080  | 3,724  | 2,557   | 2,469   |
|              | 채권    | 1,165 | 1,025 | 1,311  | 1,045  | 740     | 680     |
| 기타           | 188   | 736   | 217   | 342    | 476    | 203     | 316     |
| 합 계          | 6,833 | 6,831 | 7,821 | 10,219 | 10,315 | 7,310   | 5,927   |

## (VC 포커스) 해외 3분기 벤처캐피탈 통계(중국,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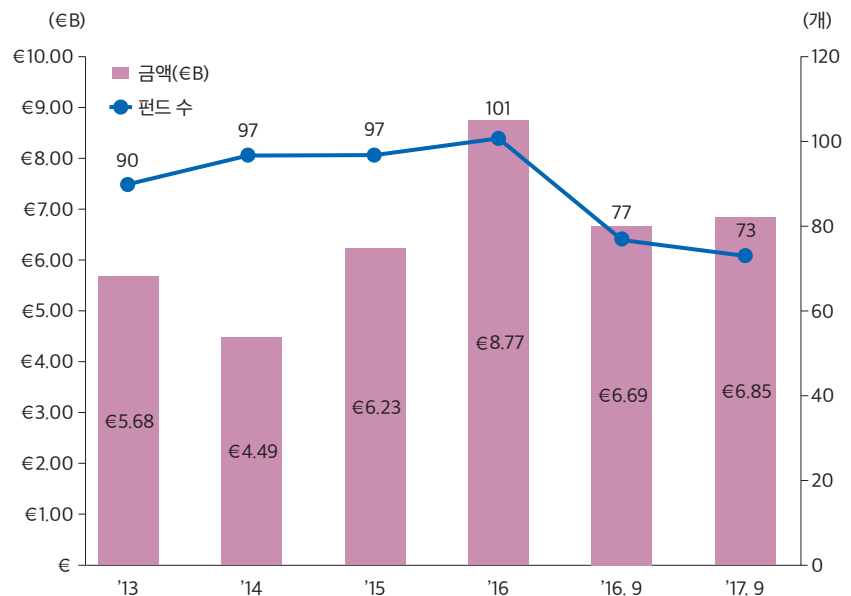
※ 자료 : DOW JONES VENTURE SOURCE “Venture Capital Report, Europe”, “Venture Capital Report, China”

## 투자 자원

- (중국) 2017년 3분기까지 27개의 펀드가 신규 결성되었으며 결성금액은 40억 4천만 달러(4조 6,319억 원)로 전년 동기(215억 1천만 달러) 대비 81.2% 감소함



- (유럽) 2017년 3분기까지 73개의 펀드가 신규 결성되었으며 결성금액은 68억 5천만 유로(9조 2,887억 원)로 전년 동기(66억 9천만 유로) 대비 2.4% 증가함



- (비교) 2017년 3분기까지 펀드 결성금액은 한국이 23,272억 원으로 유럽은 한국의 4.0배 수준, 중국은 2.0배 수준임

## 신규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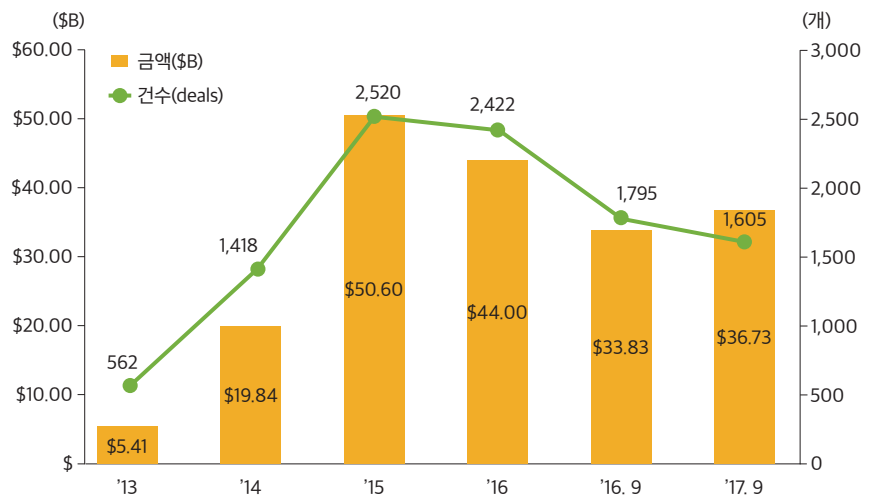
펀드결성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6. 9 | 2017. 9 |
|-----|--------|--------|--------|---------|---------|---------|
| 중국  | 37,491 | 90,459 | 93,210 | 253,491 | 246,612 | 46,319  |
| 유럽  | 77,022 | 60,885 | 84,480 | 118,923 | 90,718  | 92,887  |
| 한국  | 16,649 | 26,195 | 26,346 | 33,515  | 22,679  | 23,272  |

\* 환율은 2017년 9월 말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 (1달러=1,146.50원, 1유로=1,356.02원)

- (중국) 2017년 3분기까지 총 1,605건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총투자금액은 367억 3천만 달러(42조 1,109억 원)를 기록함



- 2017년 3분기 중국에서는 자전거 세어링 플랫폼인 Beijing Bikelock Technology, P2P 금융업체인 Shanghai Dianrong Financial Information Service 등이 가장 많은 VC 투자를 받은 기업임

2017년 3/4분기 신규투자기업(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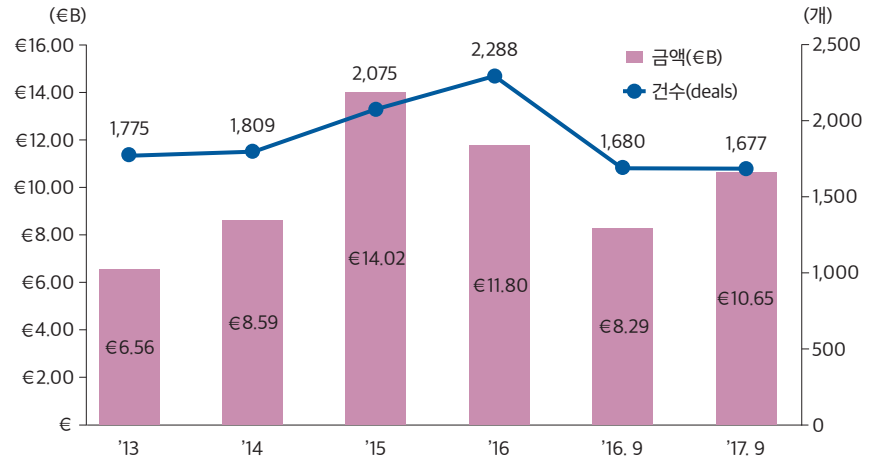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순 위 | 2017년 3/4분기                                          |     |
|-----|------------------------------------------------------|-----|
|     | 기업명                                                  | 금액  |
| 1   | Beijing Bikelock Technology                          | 700 |
| 2   | Shanghai Dianrong Financial Information Service      | 220 |
| 3   | Shenzhen Kingdee Suishou Personal Finance Technology | 200 |
| 4   | Beijing Shanyi Shanmei Information Technology        | 200 |
| 5   | Beijing Dami Technology                              | 200 |

- (유럽) 2017년 3분기까지 총 1,677건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총투자금액은 106억 5천만 유로(14조 4,416억 원)를 기록함



## (VC 포커스) 해외 3분기 벤처캐피탈 통계(중국, 유럽)



- 2017년 3분기 유럽에서는 영국의 음식배달 플랫폼업체인 Roofoods, 독일의 온라인 음악 유통 플랫폼인 SoundCloud가 가장 많은 VC 투자를 받은 기업임

## 2017년 3/4분기 신규투자기업(유럽)

(단위: 백만 유로)

| 순 위 | 2017년 3/4분기            |     |
|-----|------------------------|-----|
|     | 기업명                    | 금액  |
| 1   | Roofoods               | 302 |
| 2   | SoundCloud             | 143 |
| 3   | Lilium Aviation        | 76  |
| 4   | TTTech Computertechnik | 75  |
| 5   | Autolus                | 64  |

- (비교) 2017년 3분기까지 신규투자는 한국이 17,006억 원으로 중국은 한국의 24.8배 수준, 유럽은 8.5배 수준을 기록함
- 2013년~2016년까지의 중국의 신규투자 연평균성장률(CAGR)<sup>1)</sup>은 101.1%로 유럽의 21.6%, 한국의 15.8%와 비교하여 현격히 높은 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규투자현황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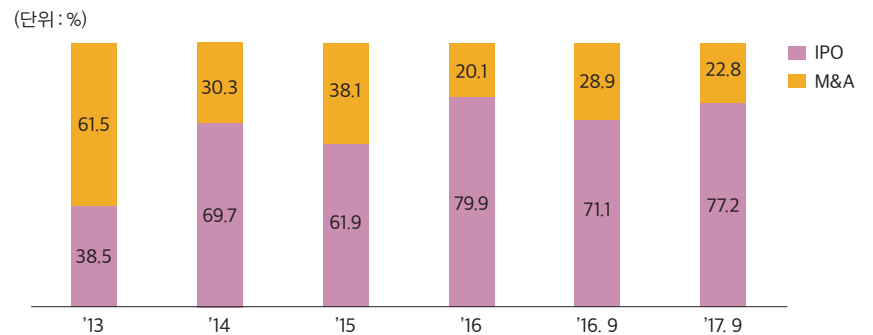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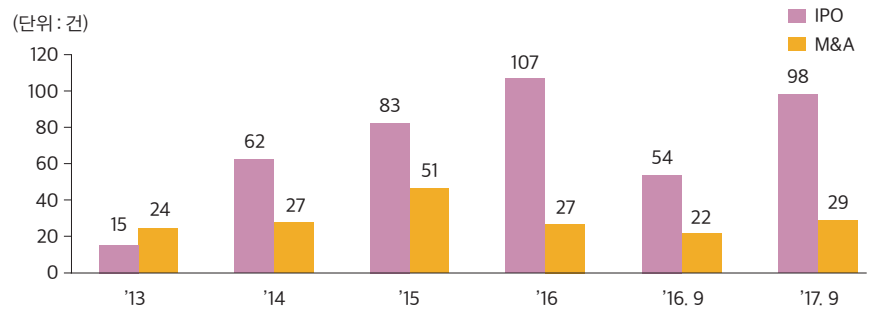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6. 9 | 2017. 9 |
|-----|--------|---------|---------|---------|---------|---------|
| 중국  | 62,026 | 227,466 | 580,129 | 504,460 | 387,861 | 421,109 |
| 유럽  | 88,955 | 116,482 | 190,114 | 160,010 | 112,414 | 144,416 |
| 한국  | 13,845 | 16,393  | 20,858  | 21,503  | 15,133  | 17,006  |

\*환율은 2017년 9월 말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 (1달러=1,146.50원, 1유로=1,356.02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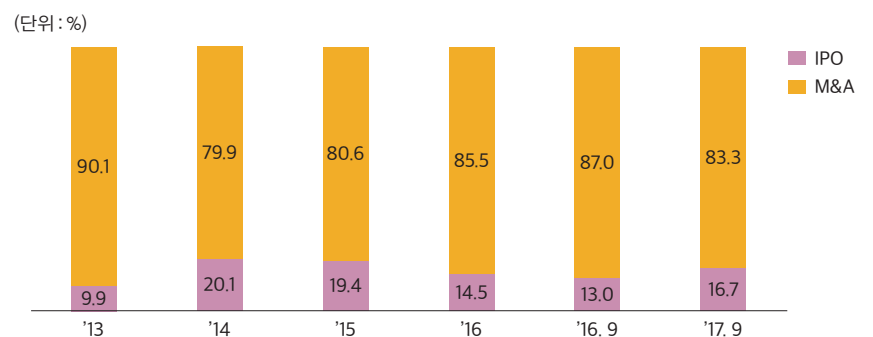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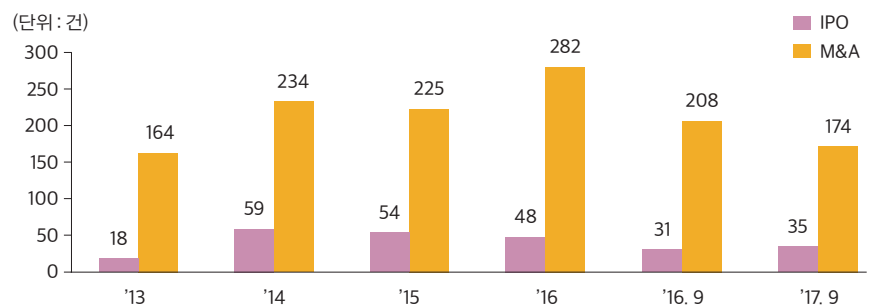
1) 연평균성장률(CAGR)은  
기하평균으로 산출하였다.

## 회수

- (중국) 2017년 3분기까지 건수 기준으로 98건 (77.2%)이 IPO, 29건 (22.8%)이 M&A를 통한 회수인 것으로 나타남



- (유럽) 2017년 3분기까지 건수 기준으로 174건 (83.3%)이 M&A, 35건 (16.7%)이 IPO를 통한 회수인 것으로 나타남



##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8,600억 원 출자를 통해 총 1조4,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운용할 벤처캐피탈(VC)을 선정했다. 운용사 신청 접수결과, 총 99개의 VC가 모태펀드 출자예정 금액(8,700억 원)의 3.6배인 3조1,349억 원을 요청했다. 최종 선정은 청년창업, 4차산업, 재기 지원 등 5개 분야에 48개의 VC가 선정됐다. 사업 분야별 접수 및 선정 결과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모태펀드 출자사업 현황

(단위: 억 원, 개사)

| 분야       | 투자대상                                          | 공고                 |               | 접수결과      |      |           | 선정결과  |               |      |
|----------|-----------------------------------------------|--------------------|---------------|-----------|------|-----------|-------|---------------|------|
|          |                                               | 출자 규모 (A)          | 조성 목표 (모태 비율) | 출자 요청 (B) | VC 수 | 경쟁률 (B/A) | 모태 출자 | 조성 목표 (모태 비율) | VC 수 |
| 청년 창업    | 대표가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청년 임직 원 비중이 50% 이상 인 창업기업 | 3,300 (본예산 300억 원) | 5,500 (60%)   | 9,883     | 50   | 3:1       | 3,300 | 5,520 (59.8%) | 21   |
| 4차 산업 혁명 | 투자금을 4차 산업 관련 R&D 등에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 2,500              | 3,572 (70%)   | 12,808    | 37   | 5.1:1     | 2,500 | 5,285 (47.3%) | 12   |
| 재기 지원    | 대표 또는 주요주주가 과거 실패 경험에 있는 재창업자인 기업 등           | 2,500              | 3,125 (80%)   | 7,960     | 26   | 3.2:1     | 2,500 | 3,125 (80%)   | 11   |
| 지방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                 | 200                | 334 (60%)     | 298       | 4    | 1.5:1     | 200   | 340 (58.8%)   | 3    |
| 지재권      | 지재권을 보유하고, 특히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등                | 200                | 334 (60%)     | 400       | 3    | 2:1       | 100   | 180 (55.6%)   | 1    |
| 계        |                                               | 8,700              | 12,865        | 31,349    | 120  | 3.6:1     | 8,600 | 14,450        | 48   |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이 12월초 1000억 블라인드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는 공모 계획을 공고하고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비해 출자액이 증가한 만큼 PE 및 VC 등 운용사를 총 4곳 이상을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정 절차는 연내 마무리 될 방침이다.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성장사다리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초기기업의 성장과 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초기기업 세컨더리 펀드' '펀드출자자(LP)지분 세컨더리 펀드' 및 '초기기업 팔로우온(Follow-on) 투자펀드' 세 가지로, 총 2천30억 원 이상 규모로 만들어진다. 펀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펀드명       | 초기기업 세컨더리펀드                                                     | LP지분 세컨더리펀드                                                             | 초기기업 팔로우온 투자펀드(2차)                                              |
|-----------|-----------------------------------------------------------------|-------------------------------------------------------------------------|-----------------------------------------------------------------|
| 목적        | 초기기업의 구주에 주로 투자해 초기기업 투자자금의 회수 지원                               | 만기도래 시점이 다가오는 VC 펀드, PE의 지분을 사들여 중소·벤처투자펀드 출자금의 회수가 재출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 | 초기투자를 받았던 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 극복을 도움                          |
| 위탁 운용금액   | 300억 원 이내                                                       | 400억 원 이내                                                               | 380억 원 이내                                                       |
| 선정 운용사 수  | 2개사 이내, 각 150억 원 이내                                             | 2개사 이내, 각 200억 원 이내                                                     | 3개사 이내                                                          |
| 출자대상 투자기구 | · 신기술사업투자조합<br>·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br>· 한국벤처투자조합<br>·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 · 신기술사업투자조합<br>·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br>· 한국벤처투자조합<br>·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 · 신기술사업투자조합<br>·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br>· 한국벤처투자조합<br>·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
| 접수일시      | 2018. 1. 31(수) 16시                                              | 2017. 11. 10(금) 16시                                                     | 2017. 11. 10(금) 16시                                             |
| 최종 선정일    | 2018년 2월 중                                                      | 2017년 12월 중                                                             | 2017년 12월 중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2차 일자리 창출 투자펀드는 1차 펀드 회수금 200억 원을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투자자 출자를 받아 총 7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구재단은 11월 1일 설명회를 거쳐 1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중순께 운용사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400억원을 출자할 블라인드 벤처펀드 운용사에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스틱인베스트먼트, KTB네트워크, 에이티넷인베스트먼트를 선정했다. 신설된 루키부문에서는 LSK인베스트먼트의 펀드에 출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진행중인 블라인드 펀드(PEF·VC) 위탁운용사 경쟁이 치열하다. 4,000억 원을 모집하는 PEF 부문에 IMM인베스트먼트, 글랜우드PE, JKL파트너스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원익투자파트너스, 뉴레이크얼라이언스, 오퍼스PE, 루터PE, 크레센도인베스트먼트, 큐캐피탈파트너스 등 10개사가 지원했으며 1,500억 원이 내로 출자할 계획인 VC부문에는 18곳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 됐다.

### 경기도

경기도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190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넥시드) 3호를 조성해 10월 30일까지 운용사를 모집한다. 190억 원 가운데 출자금액(30억 원)의 2배인 60억 원 이상을 도내 콘텐츠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투자 관련 규제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 등  
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장 조성 및 인프라 마련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부터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는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정기 구독 신청 문의 및 기고 보내주실 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 TEL. ☎ (02)2156-2141 • FAX ☎ (02)2156-2110

• E-mail ☎ [newsletter@kvca.or.kr](mailto:newsletter@kvca.or.kr)

#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VENTURE CAPITAL NEWSLETTER